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전화 : 031-628-0026, 0027 팩스 : 031-628-0054 이메일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미국,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정서의 대안 고려

*Arms Control Today*는 미국 고위급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질병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2월에 미국 특사인 Laura Kennedy는 오바마 행정부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검증의정서가 아닌 다른 조치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photo).

2011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제7차 BWC 평가회의는 협약 규정들의 유효성 및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천연두와 탄저균 같은 무기화된 병원균을 개발, 생산, 비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원국들의 능력에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평가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 워싱턴은 BWC 회원국들이 협약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감시 체제 확립 노력에 반대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임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협약 특사인 Laura Kennedy는 강제 메커니즘 외에도 협약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고 *Arms Control Today*에 밝혔다.

Kennedy는 “나는 이 논의에 대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10년에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의 수가 기록적이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신기록 달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회원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1975년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에는 현재 164개 회원국이 가담하고 있다.

Kennedy는 “둘째,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할 때 보다 일관성 있고 유용하도록 보고서 문항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셋째,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라고 덧붙였다.

또한, Kennedy는 “이것들은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의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가회의에서는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Kennedy는 “이러한 관심사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검증의정서에 대한 견해차를 고려하여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생물학적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계속 말했다.

평가회의는 5년 주기로 개최되는데, Kennedy는 이번 제7차 평가회의를 위한 4월의 준비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의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Foreign Policy magazine에 따르면 현재 상태의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생물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별로 효과적인 체계가 아니라 전했는데,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부 및 구 소련이 모두 이 협약의 규정들을 우롱했다.

모든 회원국은 BWC 신뢰구축조치 보고서의 일환으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10년에 단지 73개 국가만 그것을 제출했는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연

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도 아무 영향이 없고 그것을 제출한 국가들도 많은 경우에 대중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Foreign Policy*에 따르면 대사들이 몇몇 사소한 프로그램상의 조치를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12월 평가회의가 협약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Kennedy는 미국이 질병 발생에 대한 감시 강화를 포함하여 보건 보안(health security)에 보다 집중하기를 제안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은 평가회의에서 이것을 미국의 요구 안건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Arms Control Today*: 2011. 6)

(*Foreign Policy*: 2011. 6. 19)

(*Global Security Newswire*: 2011. 6. 20)

미국 상원의원 Lieberman, 생물보안 개정 법안 제출

워싱턴 -- 미국 상원의원 Joseph Lieberman(무소속-코네티컷 주)은 미국 내의 바이오관련 연구소들의 보안 조치를 촉진하고 잠재적인 생물테러 공격에 맞서는 연방의 노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산하 국토안보정부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 Affairs Committee)의 의장은 동 상-하원 양대 법안들이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질병인자 리스트를 분류하고 바이오 관련 연구소에서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및 인적 감시(personnel screening)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 상원 법안은 7월에 제출될 예정인데, 하원 법안은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mmittee) 의장인 Peter King(공화당-뉴욕 주)과 위원인 Bill Pascrell(민주당-뉴저지 주)에 의해 6월 넷째주 쯤 제출될 예정이다.

Lieberman은 “생물테러 공격의 위협 때문에 나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병원균 및 이를 무기화한 수단이 다른 대량살상무기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국토안보정책위원회(Homeland Security Policy Institute)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Lieberman은 “악의적인 반미 의식을

가진 하위국가 단체가 우리에게 대한 생물무기 사용이나 생물테러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리 허황된 상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하원정보위원회(House Intelligence Committee)의 의장인 Mike Rogers(공화당-미시간 주)에 따르면, 미국 특공대가 2011년 5월에 테러리스트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래 활용할 수 있는 몇몇 자료들을 분류해 본 결과 알카에다와 그 연계 조직들의 목적은 아직도 대량살상무기를 찾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Lieberman은 청중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중요한 적군 하나를 축출했다고 해서……이것이 그들의 모든 욕망을 사라지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미 보건부 및 농무부가 동물과 인간의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규정한 탄저균과 같은 병원균 및 생물학적 독소(biological toxin)로 82종류의 생물작용제(select agent)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바이오디펜스 활동에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치명적인 유해 가능성이 있는 질병물질을 다루는 연구소 및 연구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보건부 및 농무부에 대하여 향후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또는 1등급(Tier 1) 물질의 목록을 준비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두 부처는 등록을 필한 연구소들이 새로운 등급 시스템에 부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리적 보안 및 인적 신뢰도 확보 방안을 개발해 나아갈 것이다.

보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심사를 맡은 위원회가 탄저균, 에볼라, 구제역 등을 포함하여 11개의 세균 및 독소를 1등급 병원균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를 다루는 연구소에 대해 구체적인 인적·물리적 보안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Lieberman은 상원의 생물보안 법안이 행정명령 및 자신과 상원의원인 Susan Collins(공화당, 메인 주)가 지난 의회에 제출했던 법안을 완전히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법안은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에 선정 연구 부지에 대한 보안 규정을 마련하고 위협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 정부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 명부를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법안은 미 상원국토안보정부위원회(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 Affair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으나 표결에 부쳐지지는 못했는데, 2009-2010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원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동 법안은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미 하원국토안보위원회(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는 정부 위원회와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물질들의 단계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유사 법안을 2010년에 승인했는데, 국토안보부보다는 오히려 농무부와 보건부가 연구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상원 법안과 비슷하게 하원 법안도 결코 의원 투표를 거치지 못했다.

양 법안은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인가를 받은 대량살상무기확산 및 테러리즘 방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가 2009년에 제시한 권고안에서 나왔는데, 위원회는 만일 중요한 보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3년 말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치명적인 병원균 및 그 외 질병 물질들이 전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공격이 핵 공격보다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위원회는 2010년에 질병 기반 공격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 성적을 “F” 로 매겼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거나 취득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하여 말해 주는 징조들이 있었으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실행하려는 시도는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Lieberman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행정명령을 성문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이 일전에 법률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라며, 동 법안이 민간 및 학계의 과학 단체들의 우려와 보건부 및 국토안보부 사이의 갈등으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코네티컷 주 의원은 동 신규 법안은 병원균을 다루거나 감독하는 여러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책임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의 바이오디펜스 전략 및 교차 예산 분석(cross-cutting budget analysis)을 개발하도록 명령한다고 전하며, 그러한 국가 전략이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Lieberman은 청중들에게 이 상원 법안이 또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법률 시행 훈련 및 파괴적인 공격으로부터의 오염 제거와 회복 수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공격의 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ieberman은 하원 법안이 대통령에게 바이오디펜스를 위한 특별 보좌관의 창설을 요구한다는 데

에 주목했는데, 이 특별 보좌관은 국가보안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일원이 될 것이다.

Lieberman은 백악관 내에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이 자신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Lieberman은 농담으로 “우리는 과거에 백악관을 원하지 않는 자리를 백악관 내에 마련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악관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전직 상원의원 Bob Graham(민주당, 플로리다 주)은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둘 다 국가보안위원회에 바이오디펜스 전담직을 마련했다는 데에 주목했다.

Graham은 보통 정치 역학이 선례를 따르곤 하는 내각의 논의 과정에서 생물학적 관심이 더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Joseph Biden 부통령이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raham은 미들급 수준인 국가보안위원회의 임원을 능가하여 생물보안에 집중하는 해비급 수준의 내각 관료를 갖는 것을, Dirk Nowitzki가 마이애미의 대형 슈퍼스타를 이기고 승리를 이끌었던 Dallas Mavericks의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승리와 비교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 전직 의원은 농담으로 “그들은 Nowitzki와 경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단지 LeBron James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Lieberman은 행정부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타협안은 그 직위의 지명자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Lieberman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꽤 엇비슷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Rogers는 또한 몇 주 내에 대유행 및 재난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 PAH)을 갱신하는 하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법안은 보건부 산하 생물위험고등연구개발국(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을 신설하고 생물학적 물질 및 그 외 대량살상무기 물질에 대한 의료 대책 생산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바이오실드 프로젝트(Project Bioshield)를 강화하는 2006년 법안이다.

두 의원들은 곧 있을 법안에 달러 액수를 첨부하지 않을지라도, 이 새로운 법안은 현재의 예산 풍토로 볼 때 의회로부터 면밀한 조사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eberman는 “우리는 현재 전보다 더 준비가 잘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대응 및 탐지 영역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하며, 만일 생물학적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정부 관료들에게 손

도끼가 날아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 하원정보위원회(House Intelligence Committee) 의장인 Rogers는 자신의 위원회가 마련한 생물테러 위협을 강조하는 조사 정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미 하원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3명의 위원으로부터 검토해 보겠노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는데, Lieberman은 곧 있을 법률 예산 분석을 법안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Lieberman은 청중들에게 “나는 밤새 깨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나 자신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그러한 불면의 원인을 줄일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15)

미국 상원의원, 바이오디펜스 법률 갱신과 관련하여 우려 표명

워싱턴 -- 생물테러 또는 자연적인 질병의 대유행 시에 미국의 공중 보건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상원 법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 인사는 이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의원인 Robert Casey(민주당, 펜실베이니아 주)와 함께 최근 대유행 및 재난대비법(PAPAH) 갱신 법안을 고안한 상원의원 Richard Burr(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우리가 벌써 1년 중 6개월을 보냈고 미국 의회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법률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말

했다.

2011년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인 이 2006년 법은 바이오실드 프로젝트(Project Bioshield)인 대량살상무기 공격의 영향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PAPAH라 불리는 이 법안은 또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재정 및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인 보건부 산하 생물위험고등연구개발국(BARDA)을 수립했다.

Burr는 이틀 동안 열린 2011년 생물보안회의(Biosecurity Conference)의 공개 토론회에서 “나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뜻이 있기 때문에 PAPA H 재
승인의 길도 있으리라 확신한다” 라고 말하며, 건강·교
육·노동·연금 상원위원회의 위원인 이 노스캐롤라이
나 주 의원은 “나는 이것이 올해 하반기 초에 이루어지
리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법률의 구
성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리라고 믿는다”
라고 덧붙였다.

Burr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2011년 10월 1일에 시작
되기 전에 만일 의원들이 기존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을
시 바이오디펜스 활동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
해서는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

또한, 미 하원정보위원회(House Intelligence Com-
mittee) 의장인 Mike Rogers(공화당, 미시건 주)는 추
가로 5년 동안 2006년 법을 갱신하는 동반 법률을 의회
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또한 생물학고등연구개발
국 및 바이오실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대비대응 담당
보건부 차관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미 하원국토안보위원회(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의장인 Peter King(공화당, 뉴욕 주)과 위
원회 위원인 Bill Pascrell(민주당, 뉴욕 주)이 미국 내
의 생물학 연구소들의 보안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
량살상무기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 연방의 노력을 진
작시키기 위해 고안된 가장 최근의 법안을 공개한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

이 법안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바이오디펜스와 관
련하여 새롭고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의 대량살상무기 센터(WMD Center) 부소장인 전직
상원의원 Jim Talent(공화당, 미주리 주)는 만일 두 법
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King-Pascrell 법안은 바이
오디펜스 재승인 법안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의 인가를 받은 대량살상무기확산 및 테러리
즘 방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의 공동 의장인 Talent에 따르면, 2006년 법
안은 대비대응 담당 보건부 차관보를 이러한 노력의 정
부측 지휘자로 간주했다.

Talent는 청중들에게 만일 의회 의원들이 두 법안에
찬성한다면 국가보안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
cil)의 일원이 될 새로운 특별 보좌관은 대비 담당 차관
보의 의제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갱신 법안에 대한 승인 과정이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Burr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Burr는 공개 토론회 후에 *Global Security News-
wire(GSN)*에 “올해 미국 의회의 어떤 법안과도 달리
PAPA H는 고된 시련을 겪게 될 몇몇 최고 법안들 가운
데 하나이다” 라고 밝히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Burr는 지금까지 심리 중인 이 법안에 대하여 양당
이 보여 준 초당적 노력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
력이 법률 수립 과정 내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화당 의원은 백악관이 이것을 의원들에게 긴급
현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법안의 통과를 도울지도 모
른다고 말했다.

Burr는 *GSN*에 “내각과 상관없이 의료 대책에서 정
확한 구조 또는 정확한 스케줄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
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경우에 그것은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30)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바이오디펜스 웹사이트 테스트

*San Francisco Chronicle*의 보도에 따르면, 생물학적 공격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대유행 기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거주자들이 비상 의료 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를 테스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공중 보건 담당자들의 방문을 받고 특정 시간에 웹사이트(www.bayareadisastermeds.org)를 점검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하여 당국은 웹사이트가 접속 급증 현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거주자들은 의약품 분배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보건상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질병 대책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수령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지역의 비상 기관들이 필요할 때에 수백만 명의 지역민들에게 약품을 원활히 분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콘트라 코스타 보건서비스(Contra Costa Health Services)의 비상 서비스 책임자인 Kim Cox는 “이 시스템은 재난 상황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의 보건상 비상사태 시 이 웹사이트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Cox는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700만 명의 Bay Area 주민들이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한 카운티에서 생활을

하고 다른 카운티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다른 카운티에 있을지 모른다” 라고 덧붙였다.

탄저균의 유포나 이와 유사한 생물학적 사건이 발생하면 당국은 확실한 분배 방법을 수립하여 감염의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항생제를 제공할 것이다.

웹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이 적절한 항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서식에는 총 20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한 번에 다량의 항생제를 수령할 수 있다.

*Chronicle*는 캘리포니아 주가 정기적으로 대기 실험을 실시하여 탄저균, 천연두균, 페스트균 같은 잠재적인 생물테러 병원균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보도했고 각 카운티들은 매년 대책들을 분배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받는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Public Health Department) 부장인 Howard Backer는 의약품을 분배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보를 얻어 내는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다.

(San Francisco Chronicle : 2011. 6. 8)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 6. 8)

미국 국방부, 아르메니아 바이오판스 활동 지원 기업으로 Black & Veatch사 선정

켄자스 주에 위치한 Black & Veatch사는 국방부 내의 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아르메니아가 인간 및 동물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생물테러 및 관련 질병인자, 시스템, 정보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방위협감소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의 협력적 생물학적 교전프로그램(Cooperative Biological Engagement Program)에 대한 계획 마

련에 착수할 것이다.

미국의 생물학적 방어 노력은 또한 고의적으로 질병을 살포하는 당사자들 및 자연적인 대유행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의존국(client country)들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Black & Veatch release : 2011. 6. 2)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3)

미국 Emergent BioSolutions사의 증강된 탄저균 백신, 임상시험에서 효과 입증

미국 전염병연구정책센터(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는 증강된 탄저균 백신이 첫 임상시험에서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에 기존 치료제보다 더 신속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임상1상(Phase 1 trial)에서 부스터(booster)인 CpG DNA의 BioThrax에 추가되었는데 Emergent BioSolutions사의 BioThrax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탄저균 백신이다.

69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부스터로 증강된 3 doses의 BioThrax와 단일 BioThrax만을 접종 받았는데 연구진은 56일 동안 참가자들의 항체 수준을 추적하고 6개월 동안 건강상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켜보았다.

증강된 백신은 항체 반응을 6-8배쯤 높였고 반응 시간을 3주쯤 증대시켰는데 해로운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부스터 백신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적합해 보였다.

연구진은 증강된 백신이 치료 기간 및 감염에 대한 면역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염병연구정책센터는 이것이 이미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release : 2011. 6. 1)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2)

미국 식품의약국, 탄저균 치료 항생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탄저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항생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2개의 회사가 항생제인 Levaquin를 정제, 액제, 주사제 형태로 상표 없이 생산하는 승인을 받았는데 FDA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의약품은 방광, 신장, 폐, 전립선, 부비동(sinuses), 피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세균 감염과 더불어 흡입 탄저균에 감염된 성인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FDA 의약과학업무국(Pharmaceutical Science Off-

ice)의 차장인 Keith Webber는 “일반 의약품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다. FDA가 승인한 일반 의약품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신체 내에서 브랜드 의약품과 동일한 약효를 낼 수 있도록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lease :

2011. 6. 20)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22)

유럽의 두 국가, 천연두 백신 구입 계약 체결

덴마크 제조사인 Bavarian Nordic사는 덴마크와 유럽의 한 NATO 회원국이 천연두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올해 안에 천연두 백신인 Imvamune을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판매의 수량이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국가가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연 상태에서는 근절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

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2,000만 dose의 백신을 구입했다.

Bavarian Nordic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Anders Hedegaard는 “비록 이것이 소규모의 주문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3개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최신 생물대응(biopreparedness)을 구축하는 데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준비된 논평을 통해 밝혔다.

(Bavarian Nordic release/Biopotfolio.com :

2011. 6. 15)

미국 보건부, 천연두 항바이러스제 구입 제한

미국 오리건 주 코벨리스에 위치한 Gazette Times는 미 보건부가 4억 3,300만 달러 상당의 천연두 항바이러스제 계약 건에서 1,200만 달러 가량을 추가로 구매하

하기로 했던 옵션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부 산하 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al Authority)

은 SIGA Technologies사와의 계약에서 이 옵션을 포함시켰었는데, 이것은 국가전략비축물자(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의 의료 대책에 포함시키고자 170만 dose의 ST-246을 구입하려던 계획이었다.

경쟁 바이오기업인 Chimerix사는 28억 달러 동 계약 건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를 철회했다.

(*Gazette Times* : 2011. 6. 27)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28)

미국 생물 의학과 등 연구개발국, Cangene사의 보툴리눔 항독소제 추가 주문

캐나다의 바이오 제약기업인 Cangene사는 미국 보건부가 국가전략비축물자(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의 용도로 동사에서 개발한 보툴리눔 항독소제 80,000 doses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건부 산하 생물 의학과 등 연구개발국이 남아 있던 계약 옵션을 실행함으로써, Cangene사는 2018년까지 80,000 doses의 추가 주문을 납품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6,10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하게 될 것인데, Cangene사는 동 계약 건으로 2억 달러 이상 받은바 있다.

6,100만 달러의 계약 확대로 앞으로 3년 동안 라이센싱 관련 업무 및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외에도 혈장을 모으는 활동도 하게 될 것이다.

보툴리눔 독소는 시안화물보다 거의 1천억 배쯤 독소가 더 강한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1g의 보툴리눔 독소만으로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Cangene Corp. release : 2011. 6. 3)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7)

영국 국가기간시설보호센터, 식량 공급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경고

London *Telegraph*는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자들이 자국의 먹이 사슬을 오염시킴으로써 큰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식량 생산자들 및 판매자들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기간시설보호센터(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는 보안 통보를 통해 식품 및 음료회사들과 함께 일반 식료품점의 제품 및 저장 부지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과 유통시스템의 취약점을 살필 것을 요구했다.

식량 안전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보호센터의 한 관제자는 “영국이 불량 행위자들로 인해 낮은 수준이지

만 고의적인 식량 오염을 겪고 있어 영국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들이 식량 공급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동 기사는 불량 행위자들이 영국의 식량 공급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했는데, 가령 세균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오염 시키거나, 또는 대량으로 생산시키거나 넓은 지역으로 유통되는 원료를 목표로 삼는 것 등이다.

동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식음료 산업, 국가의 식량 기반이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집단들의 위협 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대량 사상자, 경제적 혼란, 광범위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동 기사는 독일에서 18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대장균 박테리아가 한창 유행일 때에 나왔는데, 한 유명한 독일 의사는 이러한 대유행에 계획적인 공격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베를린에 위치한 Vivantes 병원 위생학 수석인 Klaus-Dieter Zastrow는 “사람들을 몇 명 죽이거나 1,000명의 사람들을 배탈나게 하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꽤 있는데 이러한 관점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태만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0년 말 미국 보안 관계자는 알카에다(al-Qaeda) 지부와 연계된 극단주의자들이 리신(ricin)이나 시안화

물 같은 치명적인 독소를 이용하여 식당이나 호텔 등의 뷔페 테이블에 독을 푸는 모의를 했다고 경고했다.

Harper Adams University College의 농업 보안 전문가인 Richard Byrne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에 비해 식량 공급 테러 위협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훨씬 더 높다. 극단주의 집단은 단기적으로는 대장균 같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카드뮴 또는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을 일으킴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국가기간시설보호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생산된 식량은 영국에서 자란 식량보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더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들은 특히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주목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London Telegraph : 2011. 6. 4)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6)

영국인, 리신(ricin) 제조법 소지 혐의로 피소

Agence France-Presse는 영국의 한 시민이 잠재적인 생물테러 물질로 치명적인 독소인 리신 제조법을 소지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25세의 파키스탄계인 Asim Kauser는 2009년 1월과 2011년 6월 사이에 생물테러 활동에 가담하거나 준비 중인 자에게 유용한 정보 소지 혐의로 영국 생물테러법의 4개 조항에 연루되어 6월 6일에 자택에서 체포되었

는데, 그는 사제폭발물 제조법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리신은 피마자씨에서 추출되어 단 1mg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현재 이 독소의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Agence France-Presse/Google News : 2011. 6. 16)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6. 17)